

투데이 칼럼

말도 안 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선수

1 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孫基禎, 1912년생)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당시 일제강점기였기에 일본 국적으로 출전하였다. 이름도 손기정이 아닌 손 기테이(Son Kitei)로 표기되었다.

손기정은 어릴 때부터 중·장거리에 강하여 지방 대회에서 우승을 독차지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체육, 미술, 음악은 타고난 재능이 대부분을 좌우한다. 특히 체육 중에서도 달리기 종목은 타고난 신체 조건, 특히 근육 타입(I, II의 구성 비율)이 전 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932년 3월 서울(당시 경성)에서 열린 제1회 동아마라톤에 출전하여 2위를 한 결과, 만 20세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뛰어난 중·장거리 선수들을 배출한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자 손기정의 기량은 일취월장하여, 1년 후 제3회 동아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1935년 도쿄 제1회 신공체회 마라톤 폴로스에 5번째 출전하여 2시간 26분 42초라는 비공인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1936년 5월 21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 선발전에 등장이자 양정고보 2년 선배였던 남승룡(南昇龍, 1912년생) 선수와 출전하여 1위 남승룡, 2위 손기정으로 입상함으로써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후일답이지만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 1위가 예상되던 손기정이,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이니 마지막에 선발하더라도, 일본 선수 2명을 국가대표로 선발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사전에 인지, 양보하여 남승룡을 1위로 만들어 할 수 없이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하려고 2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일본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일본은 손기정과 남승룡을 어떻게든 탈락시키고 순수 일본인을 출전시키고자 언제나 그렇

듯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잔머리를 굴렀다.

올림픽 출전 인원은 3명이었기에 선발전에서 3위, 4위를 한 일본 선수를 예비 후보로 넣어 총 4명이 베를린 현장에서 (운동생리학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말도 안 되는) 2차 선발전(7월 22일, 30km)을 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대회(8월 9일)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이러한 기괴한 일을 스스로 감행할 수 없었다.

대회 출전을 위해 6월 1일 (당시에는 가능했던)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긴 여정 끝에 6월 17일 간신히 베를린에 도착한 선수들에게는 충분한 식사, 휴식,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별별 핑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선발전 30km 내내 손기정과 남승룡을 따라잡지 못하자 일본 선수들은 물레 코스를 이탈해 지름길로 가는 전대미문의 반칙까지 저질렀다.

이를 알아챈 손기정과 남승룡은 분노하며 반드시 이기자고 다짐하고 달렸다고 한다. 여담으로, 지름길로 왔으면서도 늦게 들어온 일본 선수에게 남승룡은 귀책대가를 날리며 격분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2차 선발전에서도 손기정과 남승룡은 사이좋게 1, 2위를 나누어 갔다. 2차 선발전에서 현지 작음에 실패하여 컨디션 난조를 보인 일본 선수가 기권하면서, 1936년 일본 대표팀 마라톤 출전 선수는 손기정, 남승룡, 타마오 시와(쿠본 대회에서는 중간 가권) 3인으로 결정되었다.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1위(금메달, 2시간 26분 42초, 올림픽 신기록), 남승룡이 3위(동메달, 2시간 31분 42초)를 차지하며 눈물 나는 우여곡절을 겪고 금빛 잔치판 영광으로 마무리되었다.

손기정은 자서전에서, 가난으로 인한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일본 선수를 이기기 위해 마라톤에 매진했다고 적고 있다.

사설

고창 어느 석산 개발 연장

전북 고창의 한 석산에 지자체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채석 구역을 넓혀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채석 허가 연장 취소와 무법한 지자체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석산 사업장의 발파와 채석,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호소했다. 이곳은 1992년에 최초로 개발이 시작됐고, 2012년 주민이 바뀐 석산이다.

업체는 허가 지역 외까지 불법 채굴을 벌여 처벌까지 받았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영업을 종료하고 복구를 마치고로 약속했지만, 돌연 지자체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아내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결과 어떻게 허가 연장이 가능했는지, 그 일단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허가 면적을 더 넓혀준 것으로 파악됐다.

토석 채취 면적을 늘리는 건 기존 면적의 20%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불법 채취 면적까지 계산에 포함해 면적을 넓히는 특혜를 줬다는 판단이다.

업체가 영업 중지 기간에도 제품을 팔아넘기는 사이 현장 점검은 1번에 그쳐, 관리 감독도 허술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군은 "지도감독 소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일단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와 공무원 징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허가 과정 감사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전히 업체를 변호하는 것은 아니냐.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북한 김주에 후계자 수업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근 2년 동안의 활동 내용을 분석해 파악한 내용인데, 북측의 선전전자 사리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전위거리 준공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참석했다. 김주애가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한 가장 최근 모습으로, 국가정보원은 주애에 대한 후계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애에 대한 호칭이나 군사 분야 활동에 동행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주애가 처음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2022년 11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때로, 최근에도 활동의 70%가 군사 분야에 쏠려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후계자로 확정된 건 아니라며 바뀔 가능성도 배

제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먼저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던,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온 후계구도와 비교해 김주애의 활동은 너무 공개적이기 때문이다.

또 1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어린 나이에 후계 수업이 진행되는 자체가 이례적이고, 무엇보다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후계 구도에 의문을 갖게 하면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는 분석도 있다.

위장전술이자, 심리전 전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고도화든가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본질의 얘기는 희석되고, 선전전, 심리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김정은의 초고도비행이나 심장질환 가능성 등 건강 상태 역시, 아직은 후계 구도와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112"

여름에는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중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대표적 범죄로 성범죄를 들 수 있다.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는 중대한 범죄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국민 중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불법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6,626건으로 이 중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에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1,297건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소형화된 디지털 기기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초소형 카메라(안경형, 볼펜형, 시계형) 또는 위장형 카메라(보조 배터리형, 라이터형, 스마트키형)를 이용하여, 눈에 잘 확인되지 않거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형태의 카메라로 활

영하는 등 그 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여성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한 장난 혹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포장된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이자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대근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뱅크시의 동물 연작, 고장 차에 오르는 코뿔소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남동부 칠턴의 웨스트무어 거리에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동물 연작 중 여덟 번째 작품인, 자동차 위를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코뿔소 벽화가 그려져 있다. 고장 난 차 보닛에는 안전 콘이 올려져 있어 이 역시 코뿔소를 연상케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